

가쓰모토 성터

언덕 위에 위치한 가쓰모토 성은 도요토미 히데요시(1537~1598)가 한반도를 침공할 때 급히 쌓은 성곽으로 짧은 기간 사용되었습니다. 일본을 통일한 히데요시는 한반도를 경유해 명나라(중국)를 정복하는 것을 다음 목표로 삼았습니다. 히데요시는 이키와 쓰시마에 15만 명 규모의 대군을 위한 병참기지를 구축하라고 가신에게 명했습니다. 이키의 북쪽 끝에 있는 가쓰모토를 비롯해 각 거점에는 히데요시가 직접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성을 짓게 되었습니다.

가쓰모토 성은 1591년에 불과 4개월 만에 세워졌습니다. 이 성은 쓰시마로 건너가기 전에 배를 정박시키는 포구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 80m 높이의 90×40m 타원형 부지를 중심으로 한 성입니다. 그러나 히데요시의 건강이 좋지 않아 원정이 여의치 않았고, 결국 침공 계획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1600년대 초, 도쿠가와 막부는 조선과의 국교를 회복하고 평화 의사를 표시하고자 이키와 쓰시마에 있는 히데요시의 외성을 폐성시켰습니다.

가쓰모토 성터는 현재 가쓰모토 항구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성터에는 입구와 성내 주요 구역을 둘러싸고 있었던 돌담의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원형은 유지하고 있으나 망루가 있었던 모퉁이 부분은 파괴되었습니다. 우석(隅石, 귀퉁이에 쌓는 돌)을 제거하는 것은 성을 모두 허물지 않으면서 방어 기능을 없애기 위해 흔히 사용된 방법이었습니다.